

한국 동남아연구의 역사적 동학 *

전제성
전북대

I. 머리말

동남아 연구는 한국에서 급속하게 발전한 지역연구 분야 중에 하나이다. 70년대 말까지 한국의 동남아 지역연구는 ‘황무지’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지난 30년간 연구업적, 연구자, 연구기관의 측면에서 동남아 지역연구는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였다. 이 논문은 바로 이러한 한국 동남아연구자들이 이룩한 성과를 소개하고 아울러 그 불가피한 한계를 짚어봄으로써 새로운 도약의 기획, 특히 최근에 출현한 ‘제3세대’ 연구자들을 위한 기획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분석의 대상은 ‘연구업적’에 한정하지 않고 ‘연구자’와 ‘연구기관’까지 포함시키고자 한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연구의 역사는 연구자가 이룩한 역사이며 연구업적과 함께 연구기관도 그들이 이룩한 불가역적 성과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연구방법은 우선 연구업적의 분석을 위해 한국 동남아연구에 있어서 가장 대표성 있는 학술지인 한국동남아학회지 『동남아시아연구』에 1992년 창간 이래로 수록된 논문들을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을 택했다. 두 번째로는 연구자 인터뷰 방식을 통해 선배 동남아 연구자들의 경험과 의견을 청취하여 연구추진과 기관형성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방식을 취했다. 물론 1990년대 동남아 연구 지망생으로서 2000년대 신진연구자로서 필자의 경험 역시 성찰적 회고의 중요한 대상이 되었다.

이하의 내용은 네 부분으로 나뉜다. 우선 한국의 동남아 연구 역사에 대한 기존의 2세대 구분법을 넘어서는 필자의 3세대 구분법을 제시하고, 이에 입각하여 1980년대에 제1세대 연구자들의 선구적 인식과 소망, 이어서 1990년에 그 출현을 선언했던 제2세대 연구와 활동의 성과를 소개하면서 한국 동남아연구사를 평가하고, 끝으로 2000년대 ‘제3세대’의 성격과 소명을 감히 주장해보고자 한다.

II. 한국 동남아연구의 세대구분

필자는 한국 동남아연구의 세대를 삼분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던 세대구분은 1990년대 이전의 “제1세대”와 이후의 “제2세대”를 나누는 신윤환 교수의 세대구분이었다(신윤환, 이성형 1996, 159-62; 조흥국 2001, 49). 정확히 말하자면 1990년을 분기점으로 한다. 바로 이 해에 동남아 지역에 관한 학위논문을 작성하고 귀국한 미국 유학 출신 학자들 5명이 <동남아정치연구회>를 결성하였는데 이 사건을 제2세대의 역사적인 자기 선언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신윤환 인터뷰,

* 이 논문은 『동아연구』 50호(2006년 2월) 특집에 게재되었던 논문, “한국의 동남아 연구 동향과 과제: ‘제3세대’ 연구자 선언을 기대하며”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자료 수집과 분류를 도와준 오하이오 주립대 박사과정의 서지원 과 영어번역을 도와준 서강대 동아연구소의 김지훈 교수에게 감사한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발견될 수 있는 오류는 오로지 필자의 책임이다.

2005/12/30). 그런데 필자는 2003년 <한국동남아연구소> 창립총회가 ‘제3세대’ 동남아연구의 출범을 알리는 사건이었다고 평가하고 ‘세대삼분구도’를 도입하고자 한다.

<표 1> 한국의 동남아연구 ‘세대삼분구도’

세대구분	제1세대연구	제2세대연구	제3세대연구
주도시기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연구자	비전공자	전공자	
연구방법	개관연구	비교연구 및 사례연구	지역연구 (장기현지조사)
연구분야	경제 및 국제관계	국내 정치, 사회, 문화, 역사 분야 추가	
연구기관	미형성	연성 조직	경성 조직

* 주의: 이 표는 이념형(ideal type)에 입각한 것이므로 세대를 앞서거나 과거를 답습하는 개별연구자가 존재할 수 있다.

<표 1>은 필자의 세대구분법을 압축한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제1세대 한국 동남아연구는 주로 비전공자들에 의한 개관적 소개위주의 연구였으며 연구 분야는 경제 및 국제관계에 치중되어 있었다. 동남아연구의 선구자였던 제1세대는 동남아 각국의 국내 정치, 사회, 문화, 역사 연구의 필요성과 함께 전문학회 창설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는데 그 본격적인 연구와 실천은 제2세대연구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제2세대 연구는 주로 외국에서 유학하면서 동남아국가들을 비교연구의 사례로 포함하거나 단일사례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박사학위논문을 작성하고 돌아온 전공자들이 주도하였다. 제2세대들은 1990년 <동남아정치연구회>를 만들어 1992년에 <동남아지역연구회>로 발전시켰고, 제1세대와 연대하여 <한국동남아학회>를 설립함으로써 동남아 전문 연구조직의 출범과 발전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기여를 하였다. 두 조직은 전국적이고 초대학적인 연구조직으로서 1990년대 한국동남아연구의 ‘허브’ 역할을 하였지만 둘 다 네트워크형 ‘연성연대’(soft solidarity) 조직이었다. 연구기관의 조직적 비약을 위해서는 제3세대를 기다려야 했다.

2000년대에 집중적으로 출현한 제3세대는 제2세대와 연대하여 기존의 <동남아지역연구회>를 좀더 딱딱한 ‘경성연대’(hard solidarity) 조직인 <사단법인 한국동남아연구소>로 재편하기에 이른다. 제3세대의 주류는 이전 세대의 후속세대 육성 노력의 성과로서 학생시절부터 동남아연구를 지망하고 장기간의 현지조사를 수행하여 학위논문을 작성하고 학제적인 협력과 교류의 관행을 일찍이 경험한 ‘지역연구자’ 스타일이기 때문에 ‘우연적’ 연구자가 아니라 ‘의식적’ 연구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이러한 세대분류에 따라 각 세대별 연구와 조직적 성과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Ⅲ. 제1세대 동남아연구: 선구적 자각과 소망

오늘의 한국과 동남아의 관계는 인식의 부재와 이익의 실제로 성격 지을 수 있다. 인식의 부재 속에서 시도되는 이익의 추구는 장기적으로 불이익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민족의 자세 자체를 흐트러뜨릴 위험마저 있다. 우리는 아시아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아시아 속의 한국’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신중히 생각해 보지 못하였다. 만일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아시아에서의 고립이란 위험과 직면할지도 모른다(이홍구 1981).

해방 이후 냉전체제의 틈바구니에서 생존과 발전을 위한 국제적 투쟁을 벌여 오는 동안 한국의 정치와 외교는 은연중 그 시각이 선진강대국과 공산권 및 구라과 중심으로 굳어져 버렸다. 이 때문에 우리의 학구적 관심도 제3세계로 통칭되는 후진국 일반은 물론 특히 동남아에 대하여도 그 관심이 최근까지 비교적 소홀하게 다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안청시 1981, 1).

앞에 인용된 두 문단은 한국 동남아연구 1세대의 선구적 상황인식과 연구취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당대 동남아 연구의 대표적인 학자인 안청시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가 주도하여 1981년에 서울대출판부에서 발간되었던 『동남아와 ASEAN』이라는 책의 서두를 장식한 문단들이다. 25년 뒤 오늘날에 관한 이야기라 해도 타당해 보일 정도이니 당시 연구자들의 선구적 자각은 놀라울 정도이며 또한 이들이 절감한 시급성에 절로 공감의 간다.

해방 이후 60년대 초반까지 한국의 동남아연구는 “황무지”로서 미국과 일본의 학계와 연구기관들이 동남아연구를 왕성하게 확대하고 있던 경향과 극적인 대조를 보였다. 196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야 한국에서 동남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동남아 주요국 한국공관 설치, 아세안 설립, 아시아태평양지역 각료회의 출범은 외교적 관심을 증대시키고 한국군의 월남전 참전은 국민적 차원에서 동남아에 대한 관심을 고양시킨다. 1970년대의 수출입국 정책도 동남아에 대한 경제적 관심을 격상시키는 작용을 하였다. 이에 따라 1970년대에 동남아에 관한 연구서와 보고서가 이전 시기보다 양적으로 증대하고 주제도 비교적 다양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외교, 군사, 경제 관련 정책연구 보고서가 주종을 이루고 동남아의 국내정치, 사회, 문화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안청시 1981, 4-5).

이러한 결핍을 인식한 제1세대는 경제와 국제관계에 관한 연구 외에도 동남아 국내 정치사회적 주제에 관한 연구에 도전하였고 그 효시가 바로 안청시 교수 등(1981, 6)의 연구였던 것이다. 이후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의 연구서적들과 한승주 교수가 소장자로 재직하던 시기의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프로젝트 성과물들이 국문 및 영문 서적으로 연이어 발간되는 등 이전 시기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연구업적들이 산출되었다(김국진 1991, 97-100).

그러나 당시의 연구서들은 대체로 “2차 문헌 중심”의 자료를 이용한 “소개 위주”의 논문을 작성하는 한계를 피할 수는 없었다(조흥국 2001). 그 이유는 우선 시급한 필요에 부응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안청시 교수의 진술처럼 “짧은 시간 검토한 자료들을 종합하여 동남아와 ASEAN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를 돕고자”하였기 때문이다(안청시 1981, 1). 그래서 안청시 교수는 “시작만 했지”라고 당대의 상황을 압축한 바 있다. 두 번째로는 1세대 연구자들이 본시 동남아를 전공한 학자들이 아니어서 외교안보연구원의 김국진 교수가 지적했듯이 “연구의 지속성이 결여되어 있고

간헐적”이었으며 그러다 보니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동남아에 대한 동적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김국진 1991, 102-103).

끝으로 동남아연구자들을 위한 조직적 기반의 결핍을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다. 김국진 교수는 “동남아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었으나 동남아 지역연구에 대한 전문연구기관이 부재하기 때문에 80년대 우리나라 동남아 지역연구도 지역연구의 지속성의 결여 및 간헐성 등 취약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김국진 1991, 100). 그러면서 김국진 교수는 “아직까지 동남아 지역연구를 위한 학회조차도 발족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 동남아 지역연구의 미비한 수준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면서 개탄하였는데(김국진 1991, 90), 그 소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제2세대의 출현을 기다려야 했다.

IV. 제2세대 동남아연구: 연구의 조직화와 발전

1. 동남아 전문연구자의 증가

1990년대 한국의 동남아 연구는 새로운 세대 연구자들이 충원되면서 연구의 증가 및 심화와 연구기관의 형성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업적을 이룩하는 도약기를 맞이하였다. 그 동인으로서 무엇보다도 먼저 동남아를 박사학위논문의 사례로 포함시킨 학자들 즉 동남아 전문연구자의 본격적 출현과 증가를 언급해야만 한다. <표 2>에서 보이듯이 80년대 말부터 동남아 관련 논문을 작성한 박사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물론 일찍이 1972년에 베트남을 사례로 논문을 작성한 이은호 교수를 비롯하여 몇몇 선구적 예외가 존재하지만 현재 한국동남아연구의 주력은 대체로 1988년 이후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학자들이다.

아울러 1990년대 초의 연구 환경도 동남아 연구자들에게 유리하게 조성되고 있었다. 공산권에 대한 연구를 고무하던 ‘북방연구’ 붐이 시들해지고 있던 상황에서 동남아 연구의 작은 붐이 일기 시작했다. 해외여행자유화 조치로 인해 동남아에 대한 직접적 접촉기회 증대, 1980년대 말부터 한국 자본의 동남아투자 증가와 그에 따른 국제노동인권 및 “아류제국주의” 논쟁, 신흥공업국론의 성행과 “동아시아의 기적” 담론 덕분에 홍콩 및 대만과 함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의 경제성장 과정에 대한 비교적 관심의 증대, 또한 제3세계연구 정치학자들과 진보적인 학생들의 베트남 혁명, 버마식 사회주의, 필리핀의 민주화에 관한 관심, 1993년에 김영삼 정부가 제창한 세계화 구호와 이에 따른 해외지역연구 적극 지원 정책 등이 응축되어 동남아 연구의 작은 붐이 조성되었던 것이다.

<표 2> 동남아연구 박사학위 취득 현황: 한국동남아연구소 회원의 경우

학위연도	1970-1985	1986-1990	1991-1995	1996-2000	2001-2005	2006-2009	합계
지역일반			2		2	1	5
국제관계			1	1			2
인도네시아		1	1	1	5	1	9
베트남	2			1	4	1	8

태국		2	2	1	3		8
필리핀			3		2	1	6
말레이시아			1	1	2		4
미얀마 (버마)				2		2	4
캄보디아						1	1
싱가포르						1	1
브루나이, 라오스, 동티모르							0
계	2	3	10	7	18	8	48

출처: 이 표는 Shin and Hwang 2004의 표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2. 전국적 연구기관의 출범

1990년대 한국 동남아연구의 불가역적 성과는 공식적인 전문연구기관을 출범시킨 데 있다. 특히 1988년부터 1990년까지 미국에서 정치학으로 박사학위를 마치고 귀국한 박사명(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신윤환(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5명의 학자들이 주도하여 <동남아정치연구회>를 결성하였던 일은 한국의 동남아 연구 역사상 처음 있는 사건이었다. 이 소그룹은 매월 동남아 연구서독회를 추진하고 동남아 입문서들을 번역 출판하면서 1년 반만에 회원을 16명으로 확대하였다(동남아정치연구회 1991; 1992).

동남아정치연구회는 별도의 사무실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대우학술재단의 독회지원프로그램에 신청하여 재단빌딩을 세미나 장소로 사용하고 소액의 회의비를 지원받았다. 이 때 연구회의 총무를 담당했던 신윤환 교수가 대우학술재단 뉴스레터에 연구회 활동을 소개하는 글을 실었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한국 동남아연구의 제1세대와 제2세대를 구별하는 언급이 등장한다. 돌이켜보면 이 짧은 글이 바로 제2세대의 출현을 알리는 선언문이었다.

이러한 비상한 시기에 안청시 교수를 비롯한 제1세대 연구자들이 동남아 전문 학회의 창립을 제안하고 2세대 연구자들이 이를 수용하여 동남아 연구자들의 숙원이던 <한국동남아학회>가 1991년 6월 29일에 설립되기에 이른다. 학회 창설을 적극 주창했던 안청시 교수는 신윤환 교수에게 학회 창립을 위한 간사를 맡겨 실무를 주관하게 하였다. 이후 초대 학회장으로 영입된 한승주 당시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기학술대회와 별도로 한-아세안 학술교류사업을 제안하였고 이 사업은 지금까지도 학회 운영에 중요한 자원으로 기능하고 있다. 또한 한국동남아학회는 오늘날 한국 동남아연구의 가장 권위 있는 학술지로 발전한 학회지 『동남아시아연구』를 1992년에 창간하는 데 성공하였다.

2세대 연구자들은 학회의 운영에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는 한 편으로 본격적인 학제적 지역연구를 위해 1992년 8월에 <동남아정치연구회>를 <동남아지역연구회>로 전환시킨다. 정치학자뿐만 아니라 인류학, 사회학, 역사학, 언어학, 경제학, 경영학 학자들 스물 네 명으로 출범한 이 연구회는 소속대학교와 학문분야를 초월한 전국적 학제적 조직이고 사무 연구 공간을 갖추지 못한 조직이라는 점에서 한국동남아학회와 유사하지만 회원의 모집과 규율에 관한 내규가 매우 강하여 학회와 성격이 구별되는 조직이었다.

동남아지역연구회의 활동은 참신한 기획과 뚜렷한 성과로 돋보였다. 연구회의 활동은 월례발표회, 공동출판, 공동현지조사, 동남아지역전문가교육, 대학원생 조직화 등 5대사업으로 요약된다. 우선,

연구회는 결성 이후 10여 년간 중단 없이 월례발표회를 개최하였는데, 회원들만 참석하는 자리에서 미간행 논문을 발표하고 장시간 토론하는 방식으로 회원 논문의 질적 향상과 회원의 전공 지역과 학문을 초월한 소통에 큰 도움을 주었다. 출판활동은 공동번역출판에 국한되지 않고 공동연구출판으로 발전했다. 연구회는 동남아에 관한 번역서들을 추가로 출판하고, 본격적인 공동연구의 성과물들을 발간하면서 본격적인 동남아 지역연구를 대중적으로 소개하고 내적으로는 회원들의 성취감을 증대시킬 수 있었다. 공동현지조사는 회원들이 동남아 국가들을 단체로 현지 조사하는 프로그램으로 회원들에게 자기가 전공한 나라는 물론이고 다른 동남아 국가들을 방문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회원들 사이에 친근감과 소속감을 높이는 효과를 낳아 호응이 좋았다. 동남아지역전문가 교육프로그램은 동남아로 파견되거나 동남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회사원들과 동남아 전공을 희망하는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이었다. 기업체들을 섭외하여 추진되는 ‘수요자 주문 방식’과 1주일 집중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수강생을 모집하여 교육하는 ‘공급자 주도 방식’이 병행되었다. 일종의 ‘수요창출형 마케팅’이라 표현할 수 있었던 이 교육프로그램은 연구의 사회적 가치실현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을 남겨 연구회 운영자금 충당에 도움이 되었다.

회고해보면 무엇보다 중요한 활동은 학문후속세대를 육성하기 위해 전개한 대학원생 조직화와 교육훈련 프로그램이었다. 연구회는 창설 1년 만에 회원추천방식으로 10여명의 대학원생들을 “연구회원”(현 “준회원”)으로 영입하였다. 연구회는 대학원생 모임에 월 10만원씩 후원금을 지급하고 교육이사를 두어 학생들의 세미나 활성화를 유도하였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학생들을 교육대상이 아니라 동반자로서 받아들였다는 점이다. 대학원생들을 총회의결권만 없었을 뿐 월례발표회, 공동현지조사, 직장인대상 지역전문가교육프로그램, 공동연구 및 번역 등 모든 프로그램에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었고 대학원생들이 세미나 참석지도를 요청하면 회원들은 기꺼이 화답하곤 했다. 대학원생 교육프로그램은 제3세대의 출현과 그들의 제2세대와의 연대형성에 결정적으로 공헌한 프로그램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모든 조직이 그렇듯이 자원동원은 조직의 발전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다. 제2세대 연구자들은 1990년에 동남아정치연구회 결성을 논의한 첫 모임에서 식사비를 거뒀던 이래 2003년 연구회가 소명을 다 할 때까지 회비 이외에 발전기금을 낸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지역연구회가 10여 년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던 것은 외부의 지원과 그것을 동원하려는 회원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선, 동남아정치연구회 시절부터 이용되던 대우학술재단 독회지원프로그램이 조직 출범시기에 중요한 자원이 되었다. 두 번째로 한진 그룹(현 대한항공) 21세기한국재단의 조건 없는 후원을 1993~1997년까지 5년간 받으면서 조직을 공고화 단계로 끌어올릴 수 있었다.

끝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으로 결성된 <컨소시엄 동아시아연구단> 활동의 직 간접적 기여를 빼놓을 수 없다. 당시 서강대 동아연구소 소장이었던 신윤환 교수는 60명의 중국, 일본, 동남아 지역연구자들을 모아서 이 초대형 연구단을 결성하고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기초학문육성사업에 도전하여 재단 역사상 최대의 연구비를 획득하는데 성공하였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2년간 지속된 동아시아연구단에 참가한 동남아연구자들은 모두 동남아지역연구회의 회원들이었고 현지조사에 근거한 연구 성과를 정치, 경제, 사회문화 분야 각 두 권씩 여섯 권의 책으로 편집하여 발간하였다. 연구단

활동을 계기로 한국적 동아시아 개념 속에 동남아를 집어넣는데 동남아연구자들이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였다. 뿐만 아니라 연구단 참가는 동남아연구기관의 도약에 있어서 결정적 계기가 되었는데 이에 관해서는 다음 장에서 이야기하겠다.

3. 연구 성과의 증가 및 다각화

연구의 측면에서도 1990년대 이후에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한국동남아학회지 『동남아시아연구』만 살펴봐도 연구의 양적 증가, 연구방법의 발전, 주제영역 및 대상국가의 확산 경향이 선명하게 나타난다. 학회지가 2000년을 기하여 연간 2회 발간으로 증편될 정도로 기고논문의 수가 증가하였다. <표 3>을 보면 여전히 사례연구가 주종을 이루고 있지만 비교를 통한 일반화 시도가 이전보다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획기적인 발전의 징표는 현지자료 반영 정도의 괄목할 만한 신장이다. 현지어 문헌을 인용하거나 현지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을 취한 논문의 비중이 학회지 초창기에는 전체게재논문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는데 2000년대에 이르러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 현지관련성이 증대할수록 독창적이고 국제적인 논문이 나올 가능성도 따라서 증대하기 때문에 연구의 질적 발전을 보증하는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표 3> 『동남아시아연구』 문헌통계(1): 연구방법과 주제

		1992-1995	1996-2000	2001-2005	Total
논문총수		33 (100%)	57 (100%)	90 (100%)	180 (100%)
연구방법					
지역일반		6 (18%)	10 (18%)	13 (16%)	29 (16%)
비교연구		1 (3%)	3 (5%)	12 (13%)	16 (9%)
사례연구		26 (79%)	44 (77%)	65 (72%)	135 (75%)
현지자료반영		9 (27%)	23 (40%)	48 (53%)	80 (44%)
연구주제					
한국관련연구		5 (15%)	4 (7%)	10 (11%)	19 (10%)
정치	정치변동	5	1	11	17
	정치과정	0	2	7	9
	정치경제	3	5	71	5
	소계	8 (24%)	8 (14%)	25 (28%)	41 (23%)
국제관계		7 (21%)	6 (11%)	6 (7%)	19 (11%)
사회	구조 /제도	1	3	1	5
	농촌/농민	1	0	4	5
	여성	1	0	4	5
	소계	3 (9%)	3 (5%)	9 (10%)	15 (8%)
문화	종족/종교	1	8	8	17

	문화변동	1	2	3	6
	정치문화	0	3	3	6
	소계	2 (6%)	13 (23%)	14 (16%)	29 (16%)
경제	경제정책	3	10	10	23
	국제경제	2	7	5	14
	소계	5 (15%)	17 (30%)	15 (17%)	37 (21%)
역사	연구경향	1	0	0	1
	고대사	3	3	3	9
	근대사	2	1	6	9
	소계	6 (18%)	4 (7%)	9 (10%)	19 (11%)
어문학	언어	0	2	4	6
	문학	1	2	5	8
	소계	1 (3%)	4 (7%)	9 (10%)	14 (8%)

1990년대 이후의 연구주제는 1세대에 주종을 이루었던 국제관계 연구, 경제학 연구, 한국 관련 연구 이외에 국내정치, 사회, 문화, 어문학 연구가 늘어났으며, 특히 인류학자들의 증가에 힘입어 문화 관련 연구가 대폭 증가하였다. 연구대상국가에 있어서도 <표 4>에 나타나듯이 기존에 선호되던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3국 사례에 국한되지 않고 그 밖의 나라들을 사례로 하는 연구의 비중이 늘어났다. 특히 태국과 말레이시아 연구가 크게 증대하여 ‘5강구도’를 형성하게 되었고, 싱가포르, 미얀마(버마), 캄보디아 연구도 희소하지만 게재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1990년대 이후 한국의 동남아연구는 주제와 사례 측면에서 ‘다각적 확산’의 경향이 선명했다고 할 수 있다.

<표 4> 『동남아시아연구』 문헌통계(2): 연구대상국가

	1992-1995	1996-2000	2001-2005	2006-2009	합계
베트남	8 (30%)	11 (22%)	16 (20%)	10(24%)	45 (23%)
태국	3 (11%)	10 (20%)	18 (22%)	5(12%)	36 (18%)
인도네시아	5 (19%)	10 (20%)	12 (15%)	7(16%)	34 (17%)
필리핀	7 (26%)	8 (16%)	10 (13%)	8(19%)	33 (16.5%)
말레이시아	1 (4%)	4 (8%)	14 (18%)	4(9%)	23 (12%)
싱가포르	2 (7%)	2 (4%)	5 (10%)	1(2%)	10 (5%)
미얀마(버마)	0	2 (4%)	3 (4%)	3(7%)	8 (4%)
캄보디아	1 (4%)	1 (2%)	1 (1%)	3(7%)	6 (3%)
라오스	0	1 (2%)	0	1(2%)	2(1%)
동티모르	0	0	0	1(2%)	1(0.5%)
브루나이	0	0	0	0	0
합계	27(100%)	49(100%)	79(100%)	43(100%)	198(100%)

주의: 게재된 논문 중 특정 사례에 국한되지 않은 일반적 연구는 총계에서 배제하였다. 비교연구는 사례로 다른 나라들을 모두 표시하여 계산하였다. 이를테면 태국과 인도네시아를 비교한 논문 1건은 태국 1건과 인도네시아 1건으로 중복 기입하였다.

V. 제3세대 동남아연구의 출현?

1. 제3세대의 정체성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제2세대는 분명한 자기선언을 통하여 그 출현을 알렸다. 그러나 제3세대의 선언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제3세대는 출현하였는가? 흥미롭게도 제3세대 출현의 징표를 읽어낸 이들은 제2세대들이었다. 제2세대의 ‘특수한’ 학자였던 신윤환 교수와 제2세대의 ‘대표적’ 학자인 박사명 교수의 말을 들어보자.

요즘 젊은 박사들은 스스로의 정체성이 약하지만 3세대라고 볼 수 있다. 2세대들은 동남아로 학위논문을 썼지만 동남아를 가보지 않고 글만 읽고 논문을 썼던 학자들이 대부분이었다(신윤환 인터뷰 2006/12/30).

우리가 학위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독자적인 리서치를 할 수 있으리라고 자신할 수 없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독회였고 번역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요즘 박사들은 현지조사 능력을 갖추고 바로 현장리서치에 뛰어들다. 게다가 학위논문을 외국출판사에서 출판하는 경우까지 있으니 ... (박사명 인터뷰 2006/01/03).

이러한 평가에 따르면 제3세대는 제2세대보다 한 층 더 ‘지역연구’에 가까운 연구자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현지어 자료와 현지 조사에 바탕을 둔 학위논문을 작성한 제3세대의 합류가 『동남아시아연구』 게재논문의 현지 관련성 증대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제3세대의 상당수는 2000년대 들어서 동남아지역연구회에 입회한 신진연구자들이다. 제3세대의 연령은 한국동남아학회의 실질적인 ‘활동회원’의 40%를 차지하는 3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의 박사들이다. 현재 동남아 연구를 목적으로 재학 중인 박사과정 학생들도 현지어를 배우고 논문작성을 위한 장기간의 현지조사를 계획하고 있으므로 제3세대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이들이 귀환해야 제3세대의 본격적 완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의 국제화도 새로운 세대 연구자들의 한 징표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몇몇 신진연구자들이 한국동남아연구사상 처음으로 학위논문을 외국출판사를 통해 발간하는가 하면(Hwang 2003; Choi 2004), 일부는 해외에서 발간되는 학술지에 논문을 기고하기 시작했다. 더 선명한 제3세대적 특징은 목적의식성이다. 현지지향성도 바로 이런 목적의식성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애초부터 동남아연구를 지향하여 진학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제3세대는 동남아 연구에 있어서 더 이상 우연적이고 간헐적이지 않고 의식적이고 지속적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한국의 동남아연구가 궤도에 진입한 상황에서 학업을 시작하여 선배세대로부터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동남아 연구자로서 제3세대가 지닌 강한 목적의식성은 견고한 연구소 창설 제안을 가능케 하였던 것이다.

2. 한국동남아연구소 설립

제3세대는 <동남아지역연구회>의 <한국동남아연구소> 전환을 위한 사단법인 창설 제안, 기획, 실무를 주관하였다. 이들 중 대다수가 2002년 8월부터 2년간 앞서 소개된 콘소시엄 동아시아연구단에서 활동했던 것이 연구소 창설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연구단에 고용된 동남아 신진연구자들은 좁은 연구실에서 바글대면서 거의 매일 대면하고 공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고 그 덕분에 상시적 토론과 논전을 거듭할 수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연구소 창설방안이 뜨거운 의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당시 신진연구자들의 희망은 연구단이라는 한시적 조직을 넘어서 성과의 조직적 환류와 축적이 가능한 그래서 허망하지 않은 항구적 조직의 결성이었다. 또한 신진연구자들은 연구단 경험을 통하여 전임연구원 및 조교 인건비와 연구팀 소속기관에 대한 간접비를 지급하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기초학문육성사업이 축적 가능한 조직결성을 위해 최소한의 자원이 될 수 있다는 발견에 이르게 되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지원금을 수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추게 되었다. 그런데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 수주가 가능 하려면 연구회라는 임의단체를 사단법인으로 전환시키는 첫 번째 관문을 넘어야 했다.

제3세대의 법인화 감행의지에 대하여 제2세대가 지지하고 부담을 나눠지기로 합의함으로써 동남아지역연구회는 해체되고 <사단법인 한국동남아연구소>로 전환된다. 2003년 12월 13일에 동남아지역연구회의 마지막 총회이자 한국동남아연구소의 창립총회가 개최되었고 기존의 네트워크형 ‘연성’(soft) 조직은 사무 및 연구 공간, 공동자료, 위계구조, 민법과 세법에 준한 행정 및 회계 시스템을 갖춘 ‘경성’(hard) 조직으로 전환된다.

본시 한국동남아연구소의 창설은 제2세대의 소망이었다. 그래서 동남아지역연구회의 영어명칭이 싱가포르의 동남아연구소의 영어이름 ‘ISEAS’를 따라서 작명된 ‘KISEAS’(Korean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이었고 이는 한국동남아연구소의 영어명칭으로 그대로 존속된다. 물리적 측면에서 싱가포르 동남아연구소처럼 세계적인 자료실, 연구실, 출판부를 갖춘 연구소의 설립을 회구했지만 각기 대학에 자리 잡고 세월이 흐르면서 그 소망은 희미해 졌다. 이 때 ‘목적의식적이고 혈기왕성하지만 계약적인’ 연구자들이 연구회에 대거 진입하고 연구소 건설을 제안함으로써 제2세대의 꿈이 실현가도에 올라서게 되었던 것이다.

연구회 마지막 회장이자 연구소의 첫 번째 소장으로 선출된 윤진표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는 신입회원들과 함께 연구소설립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외교통상부에 사단법인 등록을 실현시키기 위해 창립발기인대회, 창립총회, 창립이사회, 위계적 조직구성,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 작성, 법인신청서 제출, 법인등기, 사업자등록 등 반년 이상의 집중적인 노동을 요하는 행정절차를 밟아나가는 한 편 모금운동을 전개하여 과반수 이상의 회원들로부터 3백~1백만 원씩 기부금을 모으는 데 성공하였다.

외국의 동남아연구기관은 대체로 국가나 대학의 지원으로 설립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회원의 성금으로 가능했던 한국동남아연구소 창설 과정은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든 독특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출범자금 확보에 만족하지 않고 자주적인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기초학문육성사업에 지원하여 대학 외부 민간학술단체로서는 드물게 연구비를 지원받는 데 성공하였고 2005년도 지원사업도 연속 수주함으로써 전임연구원 및 조교 인력 고용, 연구실 및 자료실 설치, 최소한의 운영비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한국동남아학회와 협력하여 한국 외교통상부와 아세안사무국이 합의해야 가능한 한-아세안학술교류기금을 수주함으로써 추가적인 사업자금을 확보하여 공고화 가도 진입을 목전에 두게 되었다.

IV. 제3세대 연구자 선언을 기다리며

제3세대의 출현과 한국동남아연구소의 출범이 본고의 ‘해피엔드’로 읽혀서는 절대 안 된다. 연구소의 출범은 ‘연성조직’에 익숙했던 소속 연구자들에게 ‘살림살이’를 유지해야 하는 ‘경성조직’의 부담을 안겨주었다. 다른 식으로 말하자면 연성조직은 산출 대비 투입이 적은 조직이라면 경성조직은 투입을 일정 선 아래로 줄이는 게 불가능한 조직이다. 그리고 형식상 딱딱한 ‘경성’(hard) 조직을 ‘강성’(strong) 조직으로 착각하면 곤란하다. 강한 조직은 고도의 집행력, 자원동원력, 회원 규율 및 합의수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강도에 있어서는 경성조직이 과거의 연성조직보다 저급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인식에 근거하여 필자는 나름대로 제3세대적 과제가 다음과 같이 선언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것으로 줄고의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1. 유기적 지식인

일반적으로 지역연구자의 요건으로 현지어 능력과 현지경험이 우선적으로 강조되어 왔다(이성형 외 2004, 8). 그러나 흔히 ‘특수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을 연구하는 학계소수자들은 유기적인 성향을 그 덕목으로 추가해야 한다. 우리 동남아연구자들은 소수자 집단으로서 연구진전과 기관형성의 동시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건설자요, 조직가요, 영구적인 설득가”인 “유기적 지식인”(organic intellectual: Antonio Gramsci의 개념을 소개하는 Burke 2006 참조)을 모델로 상정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유기적이라는 말이 구조적, 근본적, 실천적, 조직적이라는 내포뿐만 아니라 학계는 물론이고 그것을 넘어서 관계되는 모든 요소들 사이의 연계된 협력을 이끌어내는 성향과 능력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하고자 한다.

강성조직은 능력 있는 연구자도 필요로 하므로 제3세대의 절반 정도가 한층 더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누리는 정규직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은 한국의 동남아연구 발전에 부분적 장애를 노정할

것이다. 그렇지만 대학의 교직을 잡아서 “전통적 지식인”(traditional intellectual)이 되는 길을 통해서만 연구자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믿음은 동남아연구의 전반적 발전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연구후속세대 육성의 절대적 한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동남아연구자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든지 간에 전국적 초대학적 동남아연구기관을 활동의 통로로 삼아 후속세대와 학교를 초월하여 만나는 길이다. 뿐만 아니라 초대학적 독립 연구소라는 통로가 동남아연구자의 정책적 사회적 영향력 신장에 큰 도움을 준다는 사실이 경험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므로 연구기관의 미래는 연구자의 가치실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이다.

제1세대와 제2세대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연구추진뿐만 아니라 자원을 동원하고 엮어낸 유기적 지식인들이 존재하였다. 민간재단의 조건 없는 후원이 기관형성과 연구진전에 큰 자원이 되었지만 그것을 동원해낸 헌신적인 연구자들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공공재를 창출하려는 노동 없이는 연구자들의 발판이 되는 기관의 공고화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그 노동이 단지 전통적이어서는 곤란하다. 출신학교의 경계, 사회과학과 인문학 간의 경계를 넘는 건 기본이고 농업이나 열대우림을 연구하는 환경 및 산림자원학에 이르기까지 진지한 동남아지역연구자라면 누구든지 만나야 한다. 또한 우리의 만남이 정부와 기업에만 국한 되서는 안 되고 아시아 연대와 교류를 주창하는 다양한 민간단체들까지 포괄되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생산한 지식의 효용을 높이는 길이며 ‘한국형 동남아연구’의 개발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도 있다.

우리는 또한 세대 간 유기적 연계를 추구해야 한다. 한국에서 동남아연구기관의 발전 과정은 ‘세대 절충적 발전’ 방식이었다. 1세대와 2세대의 연대는 한국동남아학회를 낳았고 2세대와 3세대의 연대는 한국동남아연구소의 탄생을 가져왔다. 2세대는 전문가를 기다리던 1세대의 공조제안을 받았으며, 3세대는 2세대에 의해 육성되거나 따뜻한 환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연구의 기풍과 활동의 방식은 새로운 세대가 중심을 잡았으며 그것이 발전을 유발했음을 간과해야 한다. 따라서 제3세대의 진취적 정체성과 주인의식의 양양이 필요함을 아울러 강조하고 싶다.

2. 국제관계·지역전문가

우리는 국내적 자원동원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국제적인 자원까지 능히 동원할 수 있는 유기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의 동남아연구 지원금을 끌어들이고 외국의 저명한 학자들의 연구업적을 번역 소개하는 노동도 필요하다. 또한 외국의 연구지원을 수주하기 위한 선행 작업으로서 한국 동남아연구의 국제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국제화를 조속히 촉진하기 위해서는 일본학자들이 취했던 방식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Takashi Shiraishi 1994).

끝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바는 우리가 새로운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는 연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3세대의 지역연구 기풍을 중심으로 하되 제1세대의 국제관계 연구와 제2세대의 비교연구 성향을 다시 혼합(hybridization)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작금의 상황은 국제관계연구와 지역연구의 혼합을 요구하고 있다. 동남아연구의 고참인 루쓰 맥베이(Ruth McVey)는 글로벌화(globalization)가 동남아연구의 주변화(marginalization)를 낳았다고 주장했지만(McVey 1998),

21세기 한국의 상황에서는 그러하지 않다. 왜냐하면 단순히 보이던 글로벌화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초국가적 위기를 계기로 지역협력의 가속화라는 복잡한 대응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동아시아 연구의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동남아연구 발전의 계기로 삼기 위해 우리 동남아 연구자들은 이른바 “국제관계·지역전문가”(IR area specialist, 혹은 국제지역전문가: Moore 2004)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 국제관계·지역전문가는 지역연구자가 국제관계(IR: international relations) 연구 능력까지 겸비한 전문가들을 말한다. 이러한 연구자들은 국제관계이론의 성과와 현지지식을 결합시켜 국제관계이론의 현실성과 실천성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하고 이로써 지역연구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대두뿐만 아니라 그 저류에 흐르는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성장, 금융위기, 조류독감, 테러리즘, 분리주의, 난민문제, 인력이동, 지진해일, 교과서분쟁, 사회운동의 국제연대와 민주주의 확산 등 국내관계와 국제관계가 뒤얽힌 초국가적 문제들의 대두는 국제관계·지역전문가들을 더욱 필요로 하고 있다.

요컨대 필자는 그 간의 놀라운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계의 소수자 지위를 면치 못하고 자력갱생의 척박한 연구 환경이 장기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동남아연구 신세대들이 추구해야 할 모델로 유기적 지식인으로서의 활동과 국제관계·지역전문가로의 연구를 촉구한다. 감히 동남아연구의 제3세대에게 연구와 노동을 실천적으로 결합한 “유기적 지식인” 모델로 연구자 공동체의 공고화를 꾀하고, 국제관계와 지역연구를 결합한 “국제관계·지역전문가” 모델로 소수자 지위로 내몰리는 연구환경을 생산적으로 돌파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 『동남아시아연구』 1-19 (1992-2009).
- 김국진. 1991. “동남아세아 지역연구.” 서울대 지역종합연구소. 『우리나라 지역연구 현황. 문제점. 활성화방안 연구』 .
- 신윤환. 1998. “한국의 비교정치 연구와 지역연구: 비판적 검토.” 이상섭·권태환 편. 『한국의 지역연구』 . 서울대학교 출판부.
- _____. 이성형. 1996. “한국 지역연구의 현황과 과제.” 『국가전략』 2:1, 155-187.
- 안청시. 1981. “서언.” 안청시·김광웅·임종철·김일철·이홍구. 『동남아와 ASEAN』 .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상섭·권태환 편. 1998. 『한국의 지역연구: 현황과 과제』 .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성형·전세성·김용복. 2004. 『한국의 해외지역연구의 실태와 과제』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 이홍구. 1981. “서문.” 안청시, 김광웅, 임종철, 김일철, 이홍구, 『동남아와 ASEAN』 . 서울대학교 출판부.
- 조흥국. 2001. “동남아시아 연구의 문제와 과제.” 『국제지역연구』 5(1).
- _____. 오명석·박사명. 1998. “동남아연구의 현황과 과제.” 이상섭·권태환 편. 『한국의 지역연구: 현황과 과제』 . 서울대학교출판부.
- Burke, B. 1999. “Antonio Gramsci and Informal Education.” *The Encyclopedia of Informal Education*, <http://www.infed.org/thinkers/et-gram.htm>.
- Choi, Byung Wook. 2004. *Southern Vietnam under the Reign of Minh Mang (1820-1841): Central Policies and Local Response*. Ithaca: Cornell Southeast Asia Program.
- Hwang, In-Won. 2003. *Personalized Politics: The Malaysian State under Mahathir*. Singapore: ISEAS.
- Moore, Gregory. 2004. “From the Ground Up: Recent Contributions of the China/Area Studies and Sino-American Relations Literature to IR Theory.”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13(39).
- Park, Seung Woo. 2004. “Korean Researchers in Southeast Asian Studies: Who They Are and What They Do.”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Workshop on *Korean Studies in ASEAN and Southeast Asian Studies in Korea*, Universitas Sains Malaysia, Penang, Malaysia, June 15-16.
- Ruth McVey. 1998, “Globalization, Marginalization, and the Study of Southeast Asia,” Craig J. Reynolds and Ruth McVey. *Southeast Asian Studies: Reorientations*, The Frank H. Golay Memorial Lectures 2 and 3. Ithaca: Cornell Southeast Asia Program.
- Shin, Yoon Hwan, and In-Won Hwang. 2004. “Settings for Southeast Asian Studies in Korea.”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Workshop on *Korean Studies in ASEAN and Southeast Asian Studies in Korea*, Universitas Sains Malaysia, Penang, Malaysia, June 15-16.
- Shiraishi, Takashi. ed. 1994. *Approaching Suharto's Indonesia from the Margins: Translation of Contemporary Japanese Scholarship on Southeast Asia*. Ithaca: Cornell Southeast Asia Program.
- Suehiro, Akira. “Bodies of Knowledge: How Thinktanks Have Affected Japan's Postwar Research on Asia.” *Social Science Japan* 9 (February).